

주택거래 늘자 가계빚 ‘깡충’ 2분기 2019.8조… 역대최대

가계대출잔액 전분기 대비 24.9조 ↑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
주택관련 12.2조·기타 12.8조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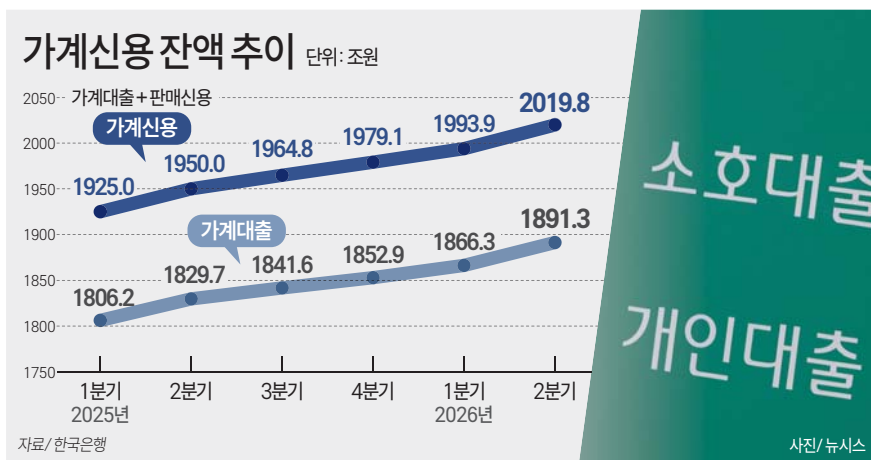
올해 2분기 가계빚이 26조원 가까이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 거래 증가로 주택관련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영끌’과 ‘빚투’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분기증가액은 지난1분기(14조8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 확대됐다. 2021년 3분기 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9조8000억원(3.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4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1분기 13조4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며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담대출 등을 합한 주택관련 대출이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1분기 8조1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커졌다. 한은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을 웃돌았다. 기타대출 증가폭도 1분기 5조4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커지며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증가가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13조3000억원 늘었다. 1분기 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예금은행 주택관련 대출이 6조8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

도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10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폭도 1분기 8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보험사와 증권사, 공적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8조6000억원 늘어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카드 이용액 등 판매신용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1분기 1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04조7000억원에서 20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 방산시장 문 열었다

美 육군 'K9 차륜형 자주포' 공급 계약
2.6억불 규모… 후속 양산사업 가능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무기체계 최초로 미 육군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9 자주포의 미국 시장 진출 길을 열었다. 차륜형 K9 시제품 6문 공급을 시작으로 최대 4년간 미군 요구에 맞춰 성능과 세부 사양을 보완하고 후속 양산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 'K9MH(K9 Mobile Howitzer)'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4년간 추가 12대를 옵션으로 인도하며 전체 계약규모는 2억6200만달러(약 3700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지난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전력을 지원한 후 76년 만에 대한민국이 역으로 미국의 포병전력 및 방산 기반 재건을 지원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뤘다. 특히 미 방산스 타트업 안두릴과 오시코시디펜스 등이 참여한 엘빗 아메리카를 비롯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독일 라인메탈 등 글로벌 방산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시제품 공급 이후 미 육군의 작전운용개념에 맞춰 K9MH를 개량할 예정이다. 향후 최대 4년간 성능 보완과 운용 평가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양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K9 차륜형 자주포(K9MH).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계약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미국 네트워크와 '사업보국' 철학을 토대로 추진해 온 글로벌 방산사업의 성과다. 김 회장은 방산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보고 지속적인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출산업 육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경영 기조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선제적인 사업 대응으로 이어졌다. 미 육군은 2020년대 초부터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케도형 자주포 개발사업(ERCA)을 추진했지만 국제 정세 변화로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차륜형 자주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미군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미 육군 예산안에서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K9MH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과 수주 과정에서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와의 공조가 뒷받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사청은 사업 초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주요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했으며 수주를 앞둔 최종 단계에서도 신속한 협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후속 양산 사업에 대비해 미국 내 생산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펜라키의 유류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이자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미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편희 기자 wkh@



metro

구윤철 “대미투자 1호 사업후보 ‘에너지 부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상황 등 공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 부문’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미국의 노하우와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시대로 가려면 에너지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이 미국의 노하우와 결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은 조선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바이오와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는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미국 정부와 차근차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암참이 지난 4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특별보고서에 이은 후속 정책 대화로 마련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 및 AI 협력 방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미국 기업의 역할 등이 이날 의제로 올랐다.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출범하면서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은 한국 경제가 이뤄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투자와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적기”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른바 ‘3·4·5비전’과 자본·외환시장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등도 공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불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법 개정과 세계국채지수 단계적 편입 등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언급하고, 내년 1월에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고 외국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KDI, 경제전망 대폭 상향… “3.2% 성장”

“0.7%p 조정 대부분은 반도체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8월)’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7%포인트(p) 올린 3.2%로 제시했다. 이전 전망은 지난 5월의 2.5%였다.

KDI의 김미루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0.7%p 상향 조정분 가운데 대략 0.6%p는 반도체와 반도체 파급에 의한 상승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0.1%p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다.

김 부장은 전체 성장률 3.2%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지난해 대비 늘어나는 성장분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올해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4.

6%에서 8.7%로 4.1%p 상향 조정됐다.

상품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호조에 힘입어 8.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3.3%에서 7.9%로 4.6%p 높였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이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시장 전망이 급격히 개선된 데다 예상보다 양호했던 2분기 GDP 실적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3597억 달러 흑자로 기존 전망보다 1207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만 19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을 뜻하는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그러나 증가한 소득은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2%에서 2.3%로 0.1%p 소폭 올라가는데 그쳤다.

김 부장은 “반도체 성과가 상당히 집중돼 있어 체감경기는 성장률보다 훨씬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이고 국민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문에서 일하는데 그쪽 영향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취업자수 증가 전망의 경우, 종전의 17만 명 관측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적게 잡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